

세계 고승 대덕 발우·禪서화 특별전 10~16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무욕·깨달음의 향훈 '물씬'



◊평 린포제가 사용하던 발우.

발우는 단순한 식기(食器)가 아닌 출가 수행자의 무소유와 무욕을 상징하는 법기(法器)다. 선서화(禪書畵) 또한 수행의 기운이 없으면 한낱 기교적 작품에 그칠



◊석주스님의 달야도.

기 쉽다. 그래서 작가가 붓글을 움직여갈 때 무심(無心)의 상태가 아니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없다.

깨달음의 향훈과 무욕의 삶을 느끼게 하는 국내외의 선지식들의 작품 전시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티베트의 철발우.



백련

◊성철스님의 일원상.

백련도 연화도량이 '2002 세계 고승대덕 발우·선서화 특별전'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역대 종정을 비롯해 원로 스님들의 그림, 글씨, 도자기 등 250여점과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베트남, 티베트, 캄보디아 등에서 수집한 해외 선지식들의 발우 50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경봉, 청담, 석주, 만봉, 성철, 서운, 석정, 중광, 수안 스님 등 범법만 들어도 얼굴이 머릿속에 단번에 그려지는 고승들부터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까지 근·현대 선서화가 총망라돼 있어 우리나라 선서화의 전모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최순택 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근·현대 禪書畵 총망라...전모 한눈에

한·일·중 등서 수집 선지식 발우 50점도

학파는 "선적 미감의 실체는 주체가 되든 객체(감상자가 되든 결국은 수행의 깊이에서 오는 느낌의 공감에서 지각된다"며 "오래 참선 수행한 사람의 선묵에서는 고담정령(古談淸淨)한 정취와 보는이의 마음을 진잔하게 가라앉히고 정화시키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고 선서화 감상법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석주스님이 40년간 사옹한 은행나무 발우를 비롯해 티베트의 달야(달야)와 평 린포제, 베트남의 민짜우 등 고승들의 발우도 눈여겨 볼만한 전시물이다. 또 인

간문화재들이 나무와 철, 도자기의 재료를 이용해 만든 발우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지명 스님(백련도 연화도량 주지)은 "3년전부터 선서화를 수집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고승대덕들의 사상, 예술정신을 동시에 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싶었다"며 "특히 세계의 큰 스님들이 남긴 발우와의 만남을 통해 물질적 가치에 함몰되기 쉬운 현대인의 병폐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편 26일부터는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대전실에서 2차 순회전시회를 갖는다. 032885-9711

문화 담당=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방송 프로 개편

'가자 월드컵으로' 등 2편 신설 '봄비나동산' 확대 매일방송을 알려준다. 또 'BBS 주간기획'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과 정쟁 상황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방송위원회

의 방송 평가척도에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 프로그램에 후한 점수를 준다는 시책에 맞춰 그동안 주간 단위 프로그램이던 '봄비나동산' (월-토, 오후 4시45분-오후 5시)을 일일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외에도 BBS 신행정당실 (월-토, 오전 10시5분-오전 10시55분) '네트워크 연결' 등은 방송시간이 5분 축소됐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가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신도용 찬불가집'.

찬불가집 2종 신도용 발행

삼보불교음악협 11일 세종출서 기념법회·음악회

불교 음악을 작곡, 작사,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99년말 사단법인체로 설립한 (사)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는 신도용과 반주용 <찬불가집> 두 권을 발간하고 11일 오후 4시 세종출서 기념법회와 같은날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음악회를 연다. 이번에 제작된 <찬불가집>은 정부기, 김동환 교수(중앙대), 조영근, 최영희씨 등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작곡가 20여명이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찬불가 433곡을 엄선해 그중 일반대중들이 편히 부를 수 있는 330곡은 수록했다. 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피아노 반주용 책도 별도로 제작했다.

이번 찬불가집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장래에 관계없이 1년에 걸쳐 총 1300여 곡을 모은 뒤 작곡가와 평론가, 음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 20명이 4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11일 고대 민족문화연

식품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선재스님(원광대)의 '식품과 인간건강' 심포지엄과 한국식품·인간·환경학회의 공동

이 과정에서 '천양함시다' 미타의 품에 안겨' 등 외국곡에 가사를 붙인 곡들이 제외됐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는 앞으로 사찰 합창단이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창곡집 발간과 함께 9월부터는 불교음악교양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1300곡중 현대정서 맞는 330곡 9월부터 불교음악교양대학 운영

정부기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달하는 찬불가는 불자는 물론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신심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며 "일반 신도들도 쉽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신도용 찬불가집을 만들게 됐다"고 권한 의의를 밝혔다.

11월 저녁 7시에 열리는 기념음악회에는 천태종과 태고종, 불교어린이 연합합창단이 출연한다. 02723-0441

포지엄과 선식 전시회가 열린다.

우선 첫째날인 11일에는 박경우 교수(고려대)의 '자연식으로 이용되는 차생 허브 식물'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최진규 소장(한국토종약초연구회)의 '토종약초 건강법' 강연 등이 열린다.

'식품과 인간건강' 심포지엄

선재 스님 '사찰의 자연과 선식' 특강

주최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1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식품과 인간관계, 그리고 선식'을 찾아보자.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명하기 위한 심

12일에는 선재스님이 '사찰의 자연과 선식'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약초와 전통차의 효과에 대해 영상자료를 활용한 강연이 이어진다. 02923-4067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아침에 공부하던 중에 '사자본심매(獅子奮迅三昧)'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기세를 떨치며 내달리면 그 동작이 민첩하기 한량없는 것처럼, 여래가 삼매 중에 큰 위력으로 미세한 번뇌까지 신속하게 제거하는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때 '보진전모(瞋瞋全無)', 즉 온몸의 미세한 털까지 모두 부르르 떨며 뻗뻗하게 일어선다고 한다. 이때, 전모(全無) 대신 금모(金毛)라고도 하여, 흔히 사용하는 '금모 사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사자(獅子)는 황금색 갈기의 사자(獅子)라는 뜻이지만, 말 그대로 '스승(師)'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부를 마치고 교정으로 나왔는데, 봄햇살이 참 따사로웠다. 포근한 봄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다. 주위를 둘러보니 문득 '금모 사자'가 바로 여기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눈길에 가는 곳마다 막 피기 시작한 꽃잎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다. 야산에는 꽃나무가 드물지만, 대학 캠퍼스의 정원처럼 손길이 많이 가는 곳에는 유독 꽃나무가 많다. 그 나무들 가지 가지마다 첫 꽃잎이 수줍은 듯 벌어지고 있었다. 봄 햇살이 참 이상하다. 예년에는 꽃들이 종류 별로 차례차례 피어났는데, 올해엔 봄이 빨리 와서 그런지 은근 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피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니,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이 마치 미인대회에 나온 듯이 저마다 청초한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금모 사자'는 바로 봄이었다.

長沙의 '산놀이'

처음엔 향기로운 꽃길따라 갔다가 다시 떨어진 꽃을 따라 돌아왔지

벤치가 앉아, 불 사자의 잔등이 위에 올라타서 우주를 소요하는 듯한 기분에 빠져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백암목'에 나오는 '장사(長沙)의 산놀이'가 생각났다. 수많은 공안 중에서 유독 시경(詩情)과 선취(禪趣)가 물씬 풍어나는 이 고적(古蹟)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사가 어느 날 산놀이를 끝내고 산문 앞에 이르자, 수좌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산놀이 갔다 온다네."
"어느 곳을 가셨습니까?"
"처음엔 향기로운 꽃길 따라 갔다가, 다시 떨어진 꽃을 따라 돌아왔지."
"불기운이 물씬 합니다."
"가을 이슬이 연꽃에 맺혀 있는 것보다 낫지."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진 뒤, 단풍바람에 알몸을 내맡기는 衡潭葉落 體露金風' 경지도 좋지만, 꽃피는 계절이면 장사처럼 꽃잎 분분한 길을 따라 실컷 산놀이를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 장사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색(色)에서 공(空)으로 갔다가, 다시 색(色)의 인간세계로 돌아와 곁길 없이 기용(機用)을 발휘하는 경지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왔다. 꽃을 보고 있노라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 모형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원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팔모점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 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정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없애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맞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꽃집 제로복사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정출원 특허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www.chanduk.com
e-mail: chanduk21@hanmail.net
경기도 아남시 준곡동 180-1